

“아버지 업그레이드하게 50만원만 주세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른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주자고 상의를 한다. 엄마가 다른 아이들은 컴퓨터가 다 있고 우리 아이만 없으니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아버지는 비싸긴 하지만 한 대 들여놓기로 한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낸 엄마는 여기 알아보고 저기 물어보는 등 고심 끝에 컴퓨터 한 대를 월부로 들여 놓는다. 아이는 신이 난다.

엄마도 신이 난다. 뭘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학교만 갔다오면 컴퓨터에 매달려서 하루종일 보낸다. 엄마는 모르는 것을 어디서 특별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걸 보면 흐뭇하고 대견하기만 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나면 자랑도 한다. “우리 영식이가 컴퓨터에 도사라니깐요!” 호호호!!! 영식이가 학교에 가고난 뒤에 엄마는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본다. 기계라면 ‘골치아프게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온 영식이 엄마, 컴퓨터 파워스위치를 눌러본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말이야!” 영어가 막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파워스위치를 열른 끈다.

혹시 고장이라도 낸건 아닐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영식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본다. 영식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열심히 해댄다.

아이고 내가 고장 내트린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몰래 한숨을 내쉬면서 엄마는 영식이한테 제안을 한다.

“영식이 혼자만 하지 말고 엄마도 좀 가르쳐 다오” 영식이는 엄마에게 뭔가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 엄마는 혼자 기억했다가 영식이가 없을 때 혼자 해 본다. 영식이가 있을땐 되는 것 같았는데 혼자 하려니 잘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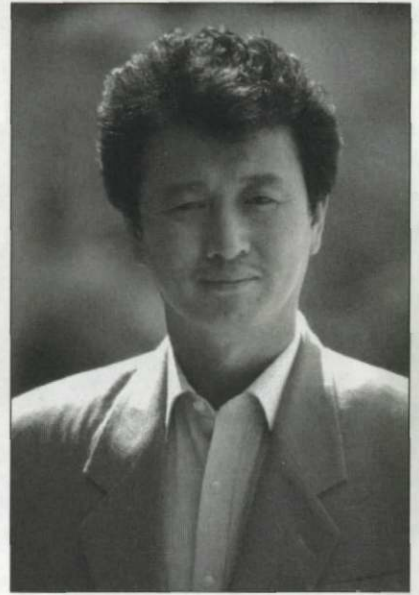
다시 영식이에게 물어본다. 영식이는 한 번 더 가르쳐 준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쩔땐 되고 또 어쩔땐 잘 안된다. “삼세번이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영식이!” 하고 다시한번 더 물어보자 하는데 영식이는 똑같은 질문을 몇번 씩해대는 엄마가 짜증스럽다.

“엄마는 이것도 몰라?” “몇번 가르쳐줘야 돼!!!” 순간 엄마는 자존심이 상한다.

“너 이거 하지마!” “컴퓨터 사달래서 사줬더니 공부는 안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나?” “아빠 들어오시면 공부는 안하고 하루 진종일 컴퓨터만하고 놀았다고 이를꺼야” 하고 비싼 돈주고 사준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엄마는 안계신지!!!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에 도사라니깐 글썸”라고 자랑하는 아버지를 많이 만난다. 우리 아들이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엄마가 컴퓨터 할줄 안다는



“우리 엄마가 컴퓨터 할 줄 안다는 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큰 자랑거리이다.”

것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큰 자랑거리다. 부모들도 그래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어릴적에 책값을 4,500원인데 6,300원이라 하고 얼마나 많이 떼어 먹었는가? 아버지 업그레이드하게 50만원만 주세요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것인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뽕땅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한다. 요새는 옛날보다 단위가 커졌다.